

2006年 8月

教育學碩士(美術教育)學位論文

아동 미술 활동에 있어서의
색채 감성 연구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美術教育專攻

姜 恩 靜

아동 미술 활동에 있어서의
색채 감성 연구

*-A study on color sensibility of
children's art activities -*

2006年 8月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美術教育專攻

姜 恩 靜

아동 미술 활동에 있어서의
색채 감성 연구

指導教授 陳元章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美術教育)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06年 4月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美術教育專攻

姜恩靜

姜恩靜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합니다.

審査委員長 朝鮮大學校 教授 인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인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인

2006年 6月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목 차

<i>ABSTRACT</i>	IV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4
II. 색채의 이론적 배경	5
1. 개념	5
2. 감정적 효과	6
3. 연상 작용	9
III. 아동의 색채 감성 연구	11
1. 아동의 색채 발달 단계	11
2. 색채 선호 연구	17
3. 색채 심리 연구	26

IV. 색채감이 미술활동에 미치는 영향	35
1. 환경과 색채감성의 관련성	35
2. 색채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37
V. 아동 미술활동을 통한 색채 감성 지도 방안	39
1. 아동을 위한 색채지도	39
2. 아동 색채 활동을 위한 학습내용	40
VI. 결 론	48
참고 문헌	51

표 목 차

[표 1] 색의 감정 연상 및 상징	10
[표 2] 난화기(Scribbling Stage, 2 ~ 4세) : 표현의 시작	13
[표 3] 전도식기(Pre schematic Stage, 4 ~ 7세) : 사실적으로 그리려는 시도	14
[표 4] 전도식기(Pre schematic Stage, 4 ~ 7세) : 표현의 특징	14
[표 5] 도식기(Schematic Stage, 7 ~ 9세) : 형태감의 발달	15
[표 6] 여명기(Gang age, 9 ~ 12세) : 사실적 표현의 여명	15
[표 7] 의사실기(Pseudo-naturalistic, 12 ~ 14세 : 색채의 변화를 감지)	16
[표 8] 김정희 색선호 연구 I	19
[표 9] 김정희 색선호 연구 II	20
[표 10] 김재은의 색선호 연구	21
[표 11] 아동이 선호하는 색상과 연상 느낌 조사	22
[표 12] 아동이 선호하지 않는 색상과 연상 느낌 조사	23

ABSTRACT

A study on color sensibility of children's art activities

Kang-Eun Jeong

Advisor : Prof. Jin-Won Jang

Major in Fine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about color perception and sensitivity of childhood to have an unusual sensibility for colors. And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fine art activities of children that help their fixed color recognition to be free and multilateral.

Children evaporates their desire through picturing freely and children's fine art has meaning of symbol and self-expression. And through fine art activities process children can communicate through non-verbal communication and we can understand their psychological condition. In fine art activities of children, it is a color that reflects physiological condition and psychological emotion expression of children excellently.

The color gives children good practice in learning an aesthetic sense, affects daily life, gives peace emotionally and physically and get children to act positively. The color preference tends to be different individually. Those are environment to be in, education, own character, habits, the vogue, social, usual condition and experience. Therefore environment affects color activities in abundance to growing children. It is as follows that we know through the color psychology study.

First, the color has an unusual sensibility for background.

Second, children recognizes a canvas by color, fill it up and accentuate forms by own intelligence and sensibility.

Third, we can see their emotional and psychological state and communicate by color without saying a word.

Lastly, the color is a mirror of the real character of children to be hid in.

This study analyzes the children's color recognition development step, color preference and color psychology. Many scholars have studied on it. It is against a color notions of children, emotional effects, associational action.

Being based on such analysis, this study intends to understand the children's latent recognition and sense on color psychology.

Moreover this study gives children opportunity to be able to recognize the color widely, abundant sensational experience by right understanding the color and has an effect on emotional purification and desirable character formation by recognizing children's environment and importance of color, and can be a reference for right color education guide.

I hope that this study revitalizes the color emotion education by fine art activities of children and positive sight to the color emotion, arouses person's interest in the color psychology, help us understand children by looking into children's inside properly and can be used for the art education for a desirable character formation of children profitabl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논문에서는 무엇보다 색채에 민감한 시기인 아동기에 자신만이 느끼는 색채의 시각과 그에 따른 색채의 발달 단계와 색 선호, 색채 심리를 연구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고정된 색채인식을 보다 자유롭게 여러 측면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여 아동 미술활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의 미술활동은 아동의 정서나 욕구 등을 전달하는 시각언어의 메시지를 통하여 아동이 획득한 개념과 생활의 경험, 관심욕구나 감정 등 아동의 숨겨진 내면의 세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동들에게 미술 활동은 자아상의 표현이며, 환경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고, 욕구표현과 무의식 세계의 투사이기도 한 것이다. 미술 활동이야말로 아동의 감성표현의 훌륭한 도구라고 하겠다.

특히 대인관계 언어변화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에 있어서 미술활동은 자기표현의 가장 자유로운 표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아동의 미술은 아동의 자아표현과 함께 상징적 의미를 갖으며 자유로운 그림 표현을 통해 욕구가 발산된다. 그리고 언어를 대신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수단인 결과물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미술 활동 과정을 통해 심리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의 미술활동 속에서 아동의 생리적인 조건, 심리적인 감정, 정서의 표출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색채이다.

색채가 가지는 효과는 아동이 사물을 보다 구체적으로 변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즉, 모든 사물은 고유한 상징과 함께 색채를 가지고 있으며 색채를 통하여서 고유한 상징을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색채는 아동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감정을 나타낸다는 것에 있어서는 모든 인간의 기능으로서 만인에게 공통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한다 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¹⁾

1) 조용진, 『아동화의 이해와 지도』, (서울: 양서원, 2001), p.21

하루가 다르게 발달 되어 가고 있는 요즘과 같은 산업사회에서 우리는 색채의 기본적인 교양을 가져야 하며 누구에게나 색채 교육은 기본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 도구도 기능적이고 다양화됨에 따라서 색채적인 심리를 필수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색채는 우리의 감정과 정서에도 깊게 작용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사소통의 분야에서는 그것을 위한 언어의 역할도 색채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색채는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 지속적인 만족과 기쁨을 준다는 러스킨(Ruskin)의 말과 같이 색채는 인간의 생명이며 인간의 심리와 감정을 움직이는 역할을 한다. 2)

아동 미술 활동 가운데에서도 미적 표현은 구성요소로서 색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색은 그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환경에 있어서도 색채가 주는 영향은 큰 부분을 차지하며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색채 그 자체만으로도 아동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변화되어 간다. 아동들은 그들의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경험 등에 의해서 인간으로서의 성격이 형성되어 가며 이러한 환경적 요인 중 색채가 갖는 심리적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시각의 문제와 색채에 대한 정서적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3)

특히 단일한 색이나 여러 색으로 어우러진 색상 둘 다 여러 가지의 감정효과를 나타내는데 그 감정적인 효과에는 색채에 따라 떠오르는 연상과 더불어 다양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되며 새로운 심리적 변화를 발견하게 된다. 그런 기분에서 각자의 색채감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4)

아동은 성장하면서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 흥미를 갖게 되며 어떤 방법으로든 외부 세계에 반응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험이 축적 될수록 정서와 관련하여 신체적인 움직임과 그에 따른 감각기능이 발달하고 잠재적인 능력이 점차 계발 되어져서 더 나아가 자발적인 학습이 향상 되어질 것이다.5)

2) 송인섭, 『교육심리학』, (서울: 양서원, 2000), p.45

3) 전수경, 「환경에 따른 아동의 색채 선호도와 색채 심리 분석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석사학위논문, 1998), p.5

4) 이선복, 「아동의 색채 선호와 연상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 대학교 조형석사학위논문, 2001), p.10

5) 최병식, 『한국 유아동미술교육 대전집』, (서울:에서원, 2001), p.39

아동기의 색채 지도는 아동의 입장에서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마땅히 지도되어야 하는 중요한 분야인 것이다. 아동 개개인의 입장을 볼 때, 아동 한사람에게 잘 맞는 색채지도가 이루어진다면 개인의 재능은 확대될 것이며, 창조적 소질을 키우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색채표현에 있어서 색채의 개념, 감정적 효과, 연상 작용의 이론의 배경으로 여러 학자들이 연구한 아동의 색채 인식 발달 단계, 색채 선호, 색채 심리를 분석하여 색채 감성이 미술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과 미술활동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동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색채 심리에 대한 인식과 감각을 이해 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폭넓은 색채에 대한 인식 기회를 넓혀 색의 올바른 이해와 풍부한 감각 경험을 통해 색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아동의 정서순화 및 바람직한 인격형성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올바른 색채지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자료로 제공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색채 발달단계에 맞추어 아동이 다양한 체험이나 색채학습을 하는 것은 섬세한 감각을 길러주는 활동이 된다고 보고, 지도내용으로는 아동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색 감각 학습, 색채 활용, 표현활동을 넣어서 자연의 아름다움의 색을 보는 눈을 갖게 하고, 색의 다양함을 깨닫도록 하였다.

또한 일찍이 시작되는 아동의 미술 활동은 색채감각을 길러 주고 색채와 관련된 표현 활동 전반에서의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의 밑받침이 된다는 것을 일깨워, 미술 활동에 있어 색채감성이 나아갈 방향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 ① 색채의 개념과 감정적 효과, 연상 작용의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여러 학자들이 연구한 아동의 색채 인식 발달 단계, 색채 선호, 색채 심리를 알아보고 기존의 연구결과와 아동과 환경의 관련성, 색채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 서적 및 관련 문헌을 분석하여 연구 하였다.
- ② 아동의 색채 감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아동 미술활동을 통한 여러 학자들의 조사를 통계하여 아동 색채 발달 단계와 아동의 색채 선호, 색채 심리를 연구 하였다.
- ③ 미술 활동을 통한 색채 감성 지도 방안을 위해서는 미술 교과서와 교사용지도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관련 문헌과 연구의 조사 분석을 통하여 색채 지도 방안을 연구 하였다.

II. 색채의 이론적 배경

1. 개념

색채(色彩)는 시 지각의 일종으로 심리학적으로 볼 때 빛이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일어나는 주관적인 감각이라고 보며 그 사물에 있는 고유의 성질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색을 볼 수 없는 것은 실제로 색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색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빛이 물체에 부딪혀 반사, 흡수 또는 투과하는 현상을 일으켜 각 파장에 어떠한 비율로 반사되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것이다.

우리가 느끼는 색의 인식은 다음의 주요한 요인에 의한다.

- 빛의 스펙트럼 에너지 분산
- 흡수, 반사, 투과의 관념에서 본 대상물의 분광적 성격
- 눈과 두뇌의 감도
- 보는 사람의 경험과 인식
- 심리적, 생리적, 물질적인 면이 모두 망라된다.⁶⁾

특히 심리적 요인은 각 개인의 받는 심리적인 색채반응을 규명하는 것으로 이 반응에는 개개인의 주의, 기억, 감정 등의 성향이 작용하게 된다. 색채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전달만이 아니고 색채가 우리들의 가장 의미 깊은 감성적인 감각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⁷⁾

6) 우리가 느끼는 색의 인식은 빛의 스펙트럼, 에너지 분산, 흡수, 반사, 투과의 관념에서 본 대상물의 분광적 성격의 눈과 두뇌의 감도, 심리적, 생리적, 물질적인 면이 모두 망라되어 보는 사람의 경험이 인식된다.
최영훈, 『색채학 개론』, (서울:미진사, 1985), p.6

7) 이남옥, 「아동 미술 교육에 있어서 색채의 중요성」, (조선대학교 교육석사학위논문, 2000), p.18

2. 감정적 효과

색이 주는 심리적 효과는 색의 감정적 표상성, 즉 어느 색의 표상 지각이 보는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페레(Chalss Fere)는 청색, 녹색, 황색, 주황색, 적색 등으로 이리지는 색광(色光) 보여 줄 때 근육의 힘과 혈액 순환이 증진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⁸⁾ 색에 대한 감정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색채조절(色彩調節)⁹⁾과 색채요법(色彩療法)¹⁰⁾등으로 응용되고 있고 색채는 우리 생활에서 대부분의 감정을 움직이고 있어 행동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색채는 미적 효과뿐만 아니라, 감정을 자극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색채가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을 들뜨게 하고 혹은 의기소침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미 일반인의 상식이 되었다. 또한 색채의 심리적 효과나 색채계획은 모두 사람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준다는 것도 빼 놓을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색채의 감정적인 효과를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 1954)은 “색채에 대한 의식적인 반응에 의해 각 개인의 주의, 기억, 충격, 감정 등과 같은 성향이 좌우 된다”¹¹⁾고 하였다.

다음은 색채에 수반되는 감정적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1) 온도감

색채 이미지에서 우리들은 적색으로 착색된 것은 따뜻하게 느끼고, 청색으로 착색된 것은 차갑게 느껴지는 것을 말한다. 붉은 적색은 불이라는 구체적 대상에서 연상되기 때문에 따뜻하게 느껴져 이 계통의 색을 난색이라고 하고, 푸른 청색은 바다라는 구체적 대상에서 연상되어 차갑게 느껴져 이 계통의 색을 한색이라 하며 따뜻함이나 차가움을 느끼게 하지 않는 녹색, 자주색, 황록색 등은 중성색이라고 한다.¹²⁾

8)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 『미술과 시지각』, (서울:기린원, 1995), p.435~439

9) 색채조절(色彩調節,color conditioning) : 색채가 감정이나 기분에 미치는 효과를 생활 디자인에 응용하는 것.

10) 색채요법(色彩療法,color therapy) : 색채를 심리적 반응에 이용하여 치료효과를 얻는 것.

11)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 상계서, p.435~439

12) 최영훈, 전계서, p.39

(2) 강약감

색채는 매우 강한 느낌을 주는 색이 있고 아주 약한 느낌을 주는 색채가 있다. 색의 강약감은 주로 채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명도에 관계없이 채도가 높은 색은 강한 느낌을 주고 채도가 낮은 색은 약한 느낌을 준다.

(3) 운동감

색채가 지닌 거리감과 운동감에 따라서 똑같은 위치의 색도 가깝거나 멀게 느껴진다. 난색계의 색은 전진해 보이거나 팽창되어 보이고, 한색계의 색은 후퇴나 수축되어 보인다.

색채의 진출과 후퇴의 일반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¹³⁾

- 한색이 난색보다 진출성이 낮다.
- 배경색보다 밝은 색일수록 진출성이 높다.
- 저채도의 배경에는 고채도의 색이 진출한다.
- 유채색이 무채색보다 더 진출성이 높다.

(4) 중량감과 경연감

일반적으로 명도가 높은 색은 외부로 향한 운동 현상에 의해 가깝게 느껴지고, 명도가 낮은 색은 내부로 향한 운동 현상에 따라 무거운 느낌을 주는 것이다. 즉, 무게 판단은 어느 색상의 경우라도 명도와 관계가 있고 채도에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어두운 색일수록 무거운 느낌을 준다.

명도에 의한 무게감과 채도에 의한 강약감은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경연감을 지닌다. 즉, 어떤 물체가 딱딱한 느낌을 주던가 아니면 부드러운 느낌을 줄 때가 있는데 이때 명도와 채도가 함께 작용한다. 경연감은 색상과 함께 톤에 의해 좌우된다. 연한 톤은 부드러우나 짙은 톤은 딱딱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어중간한 톤은 약간 무겁게 느껴진다. 색상으로는 한색계열은 딱딱하게 느껴지고 난색계열은 부드럽다. 그러나 색상보다는 톤이 더 경연감과 관계가 깊다.¹⁴⁾

13) 유관호, 『실제 이론의 색채』, (서울:청우, 1983), p.102

14) 박은주, 『색채조형의 기초』, (서울:미진사, 1989), p.220

(5) 흥분과 진정감

색채는 우리들의 마음과 몸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침진시키기도 하는 작용이 있다. 난색 계통의 높은 명도 채도의 색상을 사용하면 흥분감을 주고, 한색 계통 중에서 낮은 명도의 색상을 사용하면 진정효과를 기대할 것이다.¹⁵⁾

(6) 진출과 후퇴감

앞으로 나와 보이는 진출성과 뒤로 물러가 보이는 후퇴성은 거리감의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운동성을 일으키는 요인은 명도의 성질에 의한 생리적인 시각현상이다. 색이 진출하던가 후퇴하던가는 색상, 명도, 채도에 의해 좌우된다. 즉 난색과 명도, 채도가 높은 색은 진출하고, 한색과 명도, 채도가 낮은 색은 후퇴하는 느낌을 준다.

실제 색의 감정효과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 할 수 있고 이런 효과는 기능적인 색채계획에 응용된다. 예를 들어 음에서 색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작곡가 바그너는 붉은 색채 속에서만 작곡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높은 소리는 밝은 색으로, 낮은 소리는 어두운 색, 똑똑한 말소리는 선명한 채도. 우물쭈물한 말소리는 흐릿한 채도로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⁶⁾

그 외에 색채는 정서적인 안정이나 흥분에 관련되는 성질이 있는데 장파장계의 색채인 빨강, 주황은 흥분시키는 색채이고 단파장계의 청색계통은 진정효과가 있다. 또한 파버비렌(F.Birren)¹⁷⁾의 연구(1979)에서는 장파장계의 색채로 된 실내에서는 시간의 경과가 길게 느껴지고 단파장계 색채의 실내에서는 그보다 짧게 느껴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색채의 감정적 효과는 실제로 기능주의적 디자인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색채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으며 또한 자연의 여러 변화 상태에서 기분에 관계된 미묘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색채에 더욱 민감한 아동에게 있어서도 색채는 긴장, 이완, 흥분과 같은 감정적 반응의 원인이 되고 있다.

15) 최영훈, 전계서, p.39

16) William Charles Libby, 「색채의 구성적 감각」, (서울:미진사, 1988), p.199

17) 파버비렌(Faber Birren): 1900년 시카고 출생, 파리 아카데미 주리앙에서 수학, 20권 이상의 색채학에 관한 책을 저술하였으며 색채와 심리학의 관련성을 연구하여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3. 연상 작용

색의 이름 중에는 개나리 색, 살색, 바다 색, 하늘색 등과 같이 특정 대상의 일반적인 빛깔에 관련된 색명이 많은데, 이런 것을 언젠가 그랬었다는 일종의 경험이나 기억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감각, 사고, 사상, 정서 등의 혼합체인 인간의 마음에 남아있는 과거의 기억이 색의 자극에 의해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을 색의 연상(color association)이라고 한다.¹⁸⁾

연상이란 심리학적 용어로서 하나의 관념으로 인하여 그와 관계되는 다른 관념이 떠오르는 현상, 또는 공존하였거나 상기하던 관념 사이에 혹은 유사하거나 대비되는 관념 사이에서 일어남, 관념연합(觀念聯合, association of idea)이라고 표기되어 있다.¹⁹⁾

색채에 대한 이미지 연상은 남·여·노·소나 민족·계절·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색채의 연상은 생활양식이나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지역과 풍토 등에 따라서 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특성을 알아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색채에 의한 연상은 그 색을 보는 사람의 경험과 지식과 기억 등에 영향을 받으며 그것을 보는 사람의 민족성이나 나이,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한 개인의 성격이나 생활환경, 교양, 직업 등에 따라서도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도 다소의 차이가 있다. 가령, 아동은 그의 짧은 경험이나 좁은 활동 범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생활 주변이나 자연환경 등에서 보다 구체적인 것을 연상할 것이며, 또 나이를 먹음에 따라 연상하는 범위는 추상적인 문화나 사회적인 것까지 확대된다.

18) William Charles Libby, 전계서, p.197

19) 한국어 사전 편찬회, 『한국어 대사전』, (서울:현문사, 1976), p.1159

[표1. 색의 감정 연상 및 상징]²⁰⁾

구분 색	색채 감각의 연상	정서 감정	색채의 표정과 상징
빨강	태양, 피, 불, 사랑, 전쟁, 소방차, 장미	분노, 공포, 열애	정열적, 혁명, 야망, 악마, 용기, 위험, 적전지대
주황	단풍, 가을, 오렌지, 당근, 석양, 등불	초조, 번민, 희열, 질투	정의, 위력, 활동적, 성취, 힘, 온화
노랑	빛, 금, 동양인, 개나리	희망, 만족, 안심, 유쾌	희망, 행복, 부귀, 양기, 쾌활, 광명, 밝고 성스러운 영광
녹색	잔디, 청년, 청춘, 5월, 채소, 숲	안심, 평화, 상쾌	청춘, 안전, 신앙, 풍부, 활기, 희망, 신선한 것, 젊고 미숙한 것
파랑	하늘, 바다, 물, 겨울, 남성	비애, 불안	이지적, 냉담, 신비, 침착, 정적, 진리
보라	포도, 도라지꽃, 가지, 숙녀, 자수정	번민, 불안, 불만족	고귀, 장엄, 영웅, 우아, 숭고한 왕권
흰색	눈, 설탕, 흰옷, 백지, 솜, 소금	청결, 백지	순결, 겸손, 평화, 진실, 불길, 청정, 행복
회색	비구름, 연기, 재, 승려, 돌	노년, 저녁, 허위, 중립	비애, 절제, 겸허, 우둔, 음기, 노년
검정	밤, 흑인, 까마귀, 머리카락, 피아노	망각, 그림자, 밤, 암흑	엄격, 공포, 사멸, 악마, 강건, 검은손, 암흑가의 왕자

20) 김삼량, 『미술교육개론』, (서울: 미진사, 1992), p.27

Ⅲ. 아동의 색채감성 연구

1. 아동의 색채 발달 단계

일찍이 심리학자들은 많은 어린이 그림을 연령별로 분류해 본 결과 각 발달 연령에 따라 그림의 특징이 변화되어 가며 각 단계를 밝히게 되었다. 어린이 미술 표현의 발달 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그들의 표현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어 나가는지를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아동화의 발달단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학자에 따라 발달의 단계 구분이 각기 다르고 각 단계별 연령의 범위와 그 용어도 조금씩 다르다. 이것은 어린이마다 발달에 있어서 개별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표준적인 발달 과정을 설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칭이나 단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같은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²¹⁾

미술발달 단계에 대한 연구학자들로는 로웬펠드(V. Lowenfeld), 루카(Mart Luka)와 시릴 버트(Cyril Burt), 켄트(Robert Kent), 린스트롬(M. Lindstrom), 켈로그(R. Kellogg)²²⁾, 리드(Read, H.)²³⁾, 김정 등의 이론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미술의 발달 단계에 관한 가장 대표적 분류법이라 할 수 있는 로웬펠드(V. Lowenfeld)의 발달단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21) Cathy A. Malchiodi, 『아동미술 심리이해』, (서울:학지사, 2001), p.72~76

22) 켈로그(Kellogg,R.)는 발달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기초적 낙서시기를 지나 방사선 형태로 커 간다고 하였다.①조형 활동 전 단계로써 자발적 활동 시기(신생아~1세), ②표현 기호로써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는 시기(2~3세), ③표현 기호로써 의미를 나타내는 시기(3~4세), ④표현의 특정 기호로써 의도 시기 I (5~7세), ⑤표현의 특정 기호로써 의도 시기 II (6~7세)로 분류하고 있다.

23) 리드(Read, H.)는 ①끄적거리는 낙서 시기(2~5세), ②선묘 시기(4세), ③묘사적 상징주의 시기(5~6세), ④묘사적 사실주의 시기(7~8세), ⑤시각적 사실주의 시기(9~10세), ⑥억압 시기(11~14세), ⑦예술적 부활 시기(청소년 15세 이후)로 분류하고 있다.

1) 로웬펠드 (V. Lowenfeld)의 연구

로웬펠드(V. Lowenfeld)는 미술을 통한 아동의 성장이 사고를 조직하는 과정과 인지 능력의 발달과 유사하다고 믿었다. 이와 같은 의미로, 미술 표현의 많은 부분에서 운동 기술이나 지각력, 언어, 기호조직화, 감각력, 공간적응력 등 아동의 초기 연구에 기초를 둔 로웬펠드(V. Lowenfeld)의 연구는 그의 저서 「창조성과 정신발달」에서 그림 발달을 주요한 6단계로 기술하고 있다.²⁴⁾ 각 단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²⁵⁾

24) V. Lowenfeld, 『*Creative and Mental Growth*』, (New York:Macmillan Co, 1952), p.64~351

V. Lowenfeld and W. Brittain, 『*Creative and Mental Growth*』, (New York:Macmillan Co, 1964), p.93~281

V. Lowenfeld and W. Brittain, 『*Creative and Mental Growth*』, (New York:Macmillan Co, 1970), p.89~311

25) V. Lowenfeld and W. Brittain,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서울:미진사, 1993), p.105

[표 2. 난화기(Scribbling Stage, 2 ~ 4세) : 표현의 시작]

	그림 특징	공간 활용	사람 그리기	비고
무질서한 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깨가 움직이는 대로 근육 활용. 팔과 좌우 움직임이 선을 만듦. 긁적거리는데 동안 멀리 쳐다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표면을 활용. 가끔 긁적거리다가 종이 밖으로 나감. 종이 위에 그려 놓은 선 무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직 시도 없음. 	
조절된 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이위의 마크 등이 작아짐. 움직임의 반복. 그리는 동안 긁적거리며 관찰 손목움직임 활용 원을 모방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이 안에만 그릴 수 있음. 전에 그린 것 주위에 그림. 특정한 부분에 몰두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모양을 그리는데 원, 선, 폐곡선, 소용돌이 모양 등이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시기에 적절한 재료로는 검정 크레파스와 넓은 종으로 표현자체를 즐기도록 질감을 느낄 수 있게 함.
이름이 있는 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려진 것들을 알고 있는 사물들에 연결 시킴. 그리는 도중에 그리려던 대상이 변화하기도 함. 다양한 종류의 선들 연필 잡기가 제대로 됨. 주의 집중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면 내에 그림의 위치를 의도적으로 정함. 화면 위에 이미 그려진 것들을 활용하여 그림. 빈 공간에 의미 부여. 선이 형태를 만드는 도구로서 이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범한 긁적거리기가 사람으로 명명되기도 함. 달리기, 흔들기, 뛰기 같은 동작을 구별하여 명명함. 	

[표 3. 전도식기(Pre schematic Stage, 4 ~ 7세) : 사실적으로 그리려는 시도]

그림 특징	공간 활용	사람 그리기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물의 형태는 도형이며 전체에서 분리되면 뭘지 알 수 없다. ·대상의 크기와 위치는 주관적이며 사물들은 서로 분리되어 그려짐. ·그림은 대화의 대상이 되고 알고 있는 사물이 그려짐. ·4세에 사각형, 5세에 삼각형 모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물은 공간속에 떠다니며 종이는 그리는 도중 방향이 바뀌기도 함. ·사물의 크기, 비례를 무시하며 사물은 남은 공간에 맞게 왜곡됨. ·공간은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듯 묘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 발의 상징이 난화에서 발달상징은 수시로 변함. ·사람은 정면을 보며 대체로 웃는 표정이고 머리에서 나온 팔, 몸, 손가락, 발의 순서로 등장. ·부분의 생략이나 왜곡은 당연함. ·옷, 머리 등의 부분이 그려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시기에는 표현에 다채로운 내용이 나타나도록 지도하며 아동의 경험이 중요하며 그림에 흥미를 느끼게 되면 다양한 재료의 사용 기회를 준다.

[표 4. 전도식기(Pre schematic Stage, 4 ~ 7세) : 표현의 특징]

발달 단계	인물의 표출	공간의 표출	색채의 표출	디자인 감각	지도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도식기 -의식적 표현이 싹틈 - (4세~7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의 생각을 찾는다. (상징적 부호를 자꾸 바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정에 의하여 처리하므로 공간의 질서가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정적인 기호에 따라 사용한다. (리얼리티와는 무관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식적으로는 취급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키도록 할 것.

[표 5. 도식기(Schematic Stage, 7 ~ 9세) : 형태 감의 발달]

그림 특징	공간 활용	사람 그리기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복을 통하여 형태감 발달. ·도식은 특별한 뜻을 가질 때 변화. ·드로잉은 지각된 것이 아닌 개념을 표현. ·대담하고 직접적, 평면적 표현. ·드로잉은 아동의 환경에 대한 지식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저선(베이스라인)과 하늘을 나타내는 선이 나타남. ·사물의 2차원적 표현과 겹쳐 그리기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 ·주관적인 공간 표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시표현, 시간, 공간. 2. X-ray 드로잉, 여러 개의 기저선 환경은 상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복되는 도식으로 사람표현. ·신체는 주로 도형으로 이루어짐. ·팔과 다리는 양감이 있게 표현되며 대체로 바른 위치에 그려짐. ·경험의 영향으로 과장, 생략, 도식 등의 변화가 나고 비례는 감정에 의해 결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성과 객관성이 공존하기 시작하고 작품의 좋고 나쁨에 영향을 받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표 6. 여명기(Gang age, 9 ~ 12세) : 사실적 표현의 여명]

그림 특징	공간 활용	사람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에 대한 표현.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의식함.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해 증가. ·사건은 사실적이기보다는 특징적으로 그려짐. ·명암과 그림자에 대한 이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저선은 사라지고 평면 공간이 등장. ·사물의 겹침이 용인됨. ·사물간의 관계에 대한 표현 시작. ·하늘은 지평선에 의해 구분됨. ·사물의 크기에 의해 공간의 깊이를 표현하려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직된 도식은 사라짐. ·옷의 세부에 관한 표현. ·강조를 위한 과장, 왜곡, 생략이 줄어들음. ·신체부분은 분리되어도 구분 가능. ·인물의 뻗뻗한 표현증가

[표 7. 의사실기(Pseudo-naturalistic, 12 ~ 14세) : 색채의 변화를 감지]

그림 특징	공간 활용	사람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그림의 단점에 대해 알고 있으며 비판적으로 대응. ·환경의 한 부분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즉흥적, 유희적 미술활동의 종결. ·주름살 등과 같은 세부의 표현에 집착하기도 함. ·사물과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의미를 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에 대해 알고 있으나 중요한 것만 자세히 묘사. ·공간의 깊이에 대한 인식. ·원근에 대한 시도. ·자신을 관람자로서 표현. ·또는 공간은 주관적으로 표현되며 자신을 참여자로 그리기도 함. ·활동, 행동은 화면 안에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확한 비례에 가까워짐. ·관절과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 ·의미에 따라 얼굴의 표현 다양. ·만화적 표현이 우세. ·일부분에 의해 사람이 표현 될 수 있음. ·성적 특징이 지나치게 강조 됨.

사춘기(13세 이후) : 3차원의 명암, 공간표현

개성적 표현 형태의 결합 시기로 Schema가 없어지고 어느 정도의 감정 이입이 이루어진다. 3차원적인 명암과 공간 표현에 익숙해진다.

진정한 의미의 창조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이시기의 아동들은 대부분 그림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시각적 요인으로 정상적인 맹인의 시각형(視覺型)과 촉각형(觸覺型)으로 구분 시켰다. 체질상의 두 유형에 맞는 교육이 중요한 데도 일률적으로 한 가지만 시행해서 아동들은 흥미를 잃는다고 지적했다.²⁶⁾

26) 김정, 『美術教育總論』, (서울:학연사, 1986), p.116

2. 색채 선호 연구

(1) 색 선호 경향

모든 아동들은 색채를 좋아한다. 대체로 밝은 색을 좋아하나 점차로 성장해 가면서 청년기가 되면 파스텔조의 색을 좋아하게 되며 빛깔이 짙은 색은 느낌이 좋지 않은 색으로 간주하게 된다.²⁷⁾ 아동의 색채개념은 아동 자신의 경험과 문화적으로 결정된 색채의 의미가 병합하게 되고, 색채는 아동에 있어서 감정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나타난다.

아동은 형태, 색채, 구도 등을 우연히 아무렇게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환경이나 감정에서 그대로 반영되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구사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색채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는 성격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연구하면서 느껴왔던 부분이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갖고 관찰 한다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파악하고 얻어낼 수 있다고 여겨진다.

아동들이 미술활동에서 그림 그리는 것을 보면 색이 그려내는 선과 형상에 관심이 주어져 색과 대상의 색이 일치하지 않고 좋아하는 색의 크레파스를 골라서 색칠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 아동들이 과거 20년 전에는 노랑·초록이 화면에 많이 등장해 왔으나 2000년대에는 특정 색이 크게 줄었고 골고루 사용하는 경향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그 이유는 각종 선전 매체의 TV 광고의 영향도 있고, 우수한 미술대회에서 심사 방법이나 입상자 작품 선정에서 현대적 다양성을 포용해 나가는 영향도 있다고 본다. 이런 모든 현상은 생활 주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다소 생활환경이나 개인이 처한 환경으로 인한 오차는 있겠지만 연구가들의 선행된 분석과 결과를 중심으로 아동의 색채 사용에 의한 색채 선호를 분석하고자 한다.²⁸⁾

27) 정지현, 「색채 기호와 색 연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석사학위논문, 1992), p.23

28) 강순규, 『아동의 색채 선호와 행동 특성 관계』, (서울:미진사, 1995), p.48

① 검정색

비교적 나이가 어릴수록 이 색깔을 좋아하는데, 진하고 단색이기에 잘 쓴다. 그림 전체나 부분을 강하게 표현해 주는 맛을 갖기 때문이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많이 쓰지 않는 편이다.

② 파란색

미국 어린이도 많이 쓰는 편이지만,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깔이다. 하늘, 바다를 비롯해 그림의 여백 공간은 거의 이 색깔로 메우는 경향이 있다. 남자 아이가 많은 편이지만 여자 아이도 상당히 쓰고 있다. 우리나라의 간판이나 선전 글씨 중 약 80~90%가 파란색 중에서도 특히 코발트 블루(cobalt blue)를 가장 많이 애용하고 있다.(자유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처음 와 보면 청국(淸國)같다고 할 만큼 파란색이 많다고 함. 우리는 늘 보아 오던 주변이라 이미 눈에 젖어 있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자유 중국이라고 하면 건물 벽이나 간판, 공문서, 포스터 등에 빨간색이 뒤범벅된 나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③ 빨간색

남자 아이보다 여자 아이가 잘 쓰고 있다. 바탕색으로는 많이 쓰지 않으나 주제에 있어서는 좋아하면서 그리는 색깔이다. 저 학년일수록 더 좋아한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어린이는 다 좋아하고 있다. 장애 어린이들도 좋아하지만 정상 어린이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다.

④ 분홍색

우리나라 여자 어린이가 빨강 다음으로 많이 쓰는 색깔이다. 어찌면 더 많이 쓸 가능성도 있는 색이다. 동양에서 많이 쓰는 편이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많은 어린이가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어린이 그림에서 더 많이 보게 된다. 일본의 즈까다 조사는 중학생이 되어야 분홍색을 좋아한다고 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선호도 5위 안에 들어 있다. 분홍색은 다분히 한국의 봄을 연상할 만큼 산천 계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달래, 살구꽃, 복숭아꽃 등을 연상케 한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별로 많이 쓰지 않는 편이다. 우리나라의 연등(漣燈)이 지극히 동양적인 모습을 자아내듯이 분홍의 의미는 간단하지만은 않은 듯하다.²⁹⁾

유아들의 그림 내용을 분석해 보면 모델에 의해 화면의 색깔이 구성되는 것이 절반 이상이다. 그 외에는 상상해서 그리기도 하고 또 무의식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옆의 어린이의 그림 색깔을 모방해서 그리기도 한다. 화지에 그려진 화면은 한 가지 색깔로 되어 있지 않고 3색 이상이 보통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조색이 어떤 것이냐 하는 점과 또 모델과 전혀 관계없는 바탕색을 칠해 놓았다든가 하는 행위 등을 조사한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색으로 화면의 50% 이상을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두세 가지의 색깔이 섞여 있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파랑+노랑, 또는 파랑+보라 등처럼 복합색도 연구 대상에 오른 것이다.

[표8. 김정 의 색선호 연구 I]³⁰⁾

구분	성별	남자 아이		여자 아이		계
		수	%	수	%	
빨강		20	9.3	40	18.0	60
초록		22	10.2	28	12.6	50
보라		10	4.6	9	4.1	19
노랑		7	3.2	22	9.9	29
고동		28	13.0	15	6.8	43
주황		18	8.3	26	11.7	44
검정		10	4.6	5	2.3	15
파랑		47	21.8	25	11.3	72
분홍		11	5.1	7	3.2	18
회색		7	3.2	0	0	7
혼합		19	8.8	24	10.8	43
분홍+초록		2	0.1	7	3.2	9
파랑+노랑		7	3.2	2	0.9	9
파랑+빨강		6	2.8	7	2.9	13
빨강+노랑		1	0.5	5	2.3	6
무색		1	0.5	0	0	1

29) 김정, 『미술교육의 모든 것』, (서울: 도서출판 예경, 1997), p.383~384

30) 김정, 『미술교육의 모든 것』, 상계서, p.403

김정의 연구 분석에 의하면 유아들은 우선 진한 색깔을 좋아하고 있다. 화면에 많이 등장하는 색깔들은 ①파랑,②초록,③노랑 ④주황,⑤빨강, ⑥분홍, ⑦검정, ⑧고동 등이다. 특히 파랑, 노랑, 빨강, 초록, 분홍 등과 같은 색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의상이나 무늬, 그림 등에서 많이 표현되는 오방색에 가까운 영향으로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표9. 김정의 색선호 연구 II]³¹⁾

구 분	남 아 (%)	여 아 (%)
회 색	1 (0.4)	0 (0)
고 동	12 (5.2)	4 (1.7)
황 토	11 (4.2)	2 (0.8)
빨 강	22 (8.3)	45 (18.6)
초 록	33 (12.5)	14 (5.9)
파 랑	39 (14.7)	22 (8.8)
노 랑	32 (12.1)	18 (7.4)
연 두	19 (7.1)	14 (5.8)
살 색	11 (4.2)	19 (7.9)
보 라	12 (4.5)	18 (7.4)
주 황	28 (10.6)	34 (14.2)
분 홍	10 (3.7)	31 (12.8)
검 정	16 (6.0)	5 (2.1)
불 명	17 (6.4)	5 (2.1)
계	265	242

김정의 조사에서 남자 아이는 파랑, 초록, 노랑, 주황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 아이의 경우는 빨강, 주황, 분홍, 파랑의 순이었다.³²⁾

색에 대한 반응은 생후 1년이 되면서부터 나타나고 어린이는 커가면서 색채를 정확하게 지각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점점 증대되어 가는데 알슐러와 해트워(Alshuler and

31) 김정, 『아동의 미술교육연구』, (서울: 창지사, 1994), p.337.

32) 김정, 『미술교육의 모든 것』, 전게서, p.403.

Hattwick)³³⁾에 의하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발달단계에 있는 어린이는 선이나 형태에 비해 색채에 더 많은 흥미를 갖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표10. 김재은의 색선호 연구]³⁴⁾

구분	나이 성별	6 세		7 세		8 세	
		남	여	남	여	남	여
흰 색		0	0	0	0.9	0	1.5
회 색		2.7	1.7	1.7	3.5	2.3	6.2
검정색		2.0	1.8	0.9	1.0	1.7	1.2
빨간색		7.3	3.0	0.9	4.8	1.1	3.5
고동색		12.3	13.5	15.2	12.4	14.6	12.2
주황색		4.6	8.6	2.2	6.5	7.9	4.0
황토색		5.4	7.3	9.3	7.1	11.7	5.7
노란색		7.5	8.7	6.9	4.9	5.2	4.4
녹 색		14.1	15.1	17.2	16.0	22.5	26.2
파란색		28.4	27.5	29.1	23.0	25.5	26.2
보라색		2.7	4.9	7.1	7.9	6.5	4.1
분홍색		4.5	7.2	5.0	7.8	1.8	4.7
공 백		2.0	0	2.8	0	0	0
불 명		1.4	2.0	0.7	1.3	0	0

김재은의 조사에 의하면 ①파란색,②초록색,③고동색,④노란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 아동이 선호하는 색과 경향

아동이 선호하지 색상에 대하여 노란색과 흰색을 왜 선호하는지에 대하여 이유를 살펴해보았다.

33) 알슐러와 해트윅(Alshuler and Hattwick): 2~4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은 자신의 감정적 체험을 추상적, 비사실적 단계에서 표현한다는 가설 아래 아동화의 그림을 연구하였다. 아동의 선호색에 따른 심리, 감정적 충동 등을 연구하여 아동의 창조적 활동과 성격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회화의 개성(Paintings and Personality)」를 공지.

34) 김재은, 『그림에 의한 아동의 심리진단』, (서울:교육출판사, 1988), p.35

선호하는 색채와 선호하지 않는 색을 조사한 결과 공통적으로 노란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동은 성의 차이를 깨닫게 되며 그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창의력이 풍부한 아동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사회가 물질문명과 황금 숭배 사상의 풍조에 영향을 받아 색채학적 감성을 익히는 감성훈련의 부족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동이 선호하는 색상에 대한 내용을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1. 아동이 선호하는 색상과 연상 느낌 조사]³⁵⁾

	선호하는 색상	
	노란색(100%)	흰색(100%)
남아	포근하고 따뜻하다.(25.2%)	마음이 편안해진다.(34.5%)
	희망차고 색이 예쁘다.(18.6%)	환한 느낌이다.(11.2%)
여아	봄을 느끼게 한다.(18.6%)	깨끗해서 좋다.(39.4%)
	눈에 잘 띄고 화사하다.(19.7%)	정직해진다.(14.5%)

아동이 선호하는 색상 중에서 노란색과 흰색에서 느껴지는 선호를 조사하였다. 남아의 경우 노란색을 ‘포근하고 따뜻하다’는 25.2%로, ‘희망차고 색이 예쁘다’는 18.6%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흰색을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34.5%를 나타내며. ‘환한 느낌이다’는 11.2%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노란색보다 흰색을 더 선호하는 이유로 심리적으로 편안한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아의 경우 노란색을 ‘봄을 느끼게 한다’는 18.6%로, ‘눈에 잘 띄고 화사하다’는 19.7%를 나타내었고, 흰색을 ‘깨끗해서 좋다’는 39.4%, ‘정직해진다’는 14.5%로 나타내

35) 홍선화, 「최근 한국 유아동의 색채심리 분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석사학위논문, 2002), p.59

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아도 역시 노란색을 선호한다. 하지만 남아가 선호하는 이유와는 달리 자신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고 추측하여 본다.

왜냐하면, 남아의 경우에 색상을 선호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게 되면 남들에게 받는 느낌 보다는 자신 스스로가 편안해지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아의 경우의 이유를 살펴보면, 주변을 의식하여 타인에게서 얻어지는 느낌을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선호하지 않는 색과 경향

아동이 선호하지 않는 색상에 대하여 검정색과 회색을 왜 싫어하는지에 대하여 이유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2. 아동이 선호하지 않는 색상과 연상 느낌 조사]³⁶⁾

	선호하지 않는 색상	
	검정색(100%)	회색(100%)
남아	어둡다.(43.3%)	잘 쓰지 않는 색이다.(22.2%)
	불안하다.(18.6%)	비가 올 것 같다.(20.8%)
여아	밤 같아서 무섭다.(36.4%)	어둡고 흐린 날이 생각한다. (32.7%)
	더러운 느낌이 든다.(12.6%)	지저분해 보인다.(28.2%)

먼저 남아의 경우 검정색을 ‘어둡다’는 43.3%, ‘불안하다’는 18.6%를 나타내었고, 회색을 ‘잘 쓰지 않는 색이다’는 22.2%, ‘비가 올 것 같다’는 20.8%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남아는 선호하지 않는 검정색과 회색을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멀리하면서 색상이 생소함으로 느껴져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³⁷⁾ 여아의

36) 홍선화, 전게서, p.59

경우 검정색을 ‘밤 같아서 무섭다’는 36.4%, ‘더러운 느낌이 든다’는 12.6%를 나타내었고, 회색을 ‘어둡고 흐린날이 생각 난다’는 32.7%, ‘지저분해 보인다’는 28.2%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여아는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를 싫어하는 듯 하며, 깔끔하지 못한 것을 좋지 않게 간주하는 경향이다.

결국, 남아와 여아는 무채색과 같이 어둡고 칙칙하고 불안한 느낌의 색상을 좋아하지 않는 반면, 채도가 높고 깨끗하며 화사한 느낌의 색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트레이(*Albert Westety Trey*)의 색채 선호 연구

트레이(*Albert Westety Trey*)교수는 색채 선호에 대한 그룹의 유형을 다음 7가지로 제시하였다.

① 지역설(地域설)

지역설은 주로 기후관계와 관련이 깊은 태양광선이 비추는 시간 및 각도(Duration and degree of sun light)에 의해서 특정지역의 색채선호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한 학자인 파버비렌(F. Birren)은 “인간이 색채를 선호한다는 것을 정상적인 건강상태이기 때문에 쾌청한 기후에 관하여 명확한 반응과 기분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기후와 환경을 강조하였고, 발드윈(E.N. Baldwin) 및 니이벨(B.W. Nidel)도 “색채 선호는 민족 환경 및 기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주장하였다.³⁸⁾

한편, 태양광선이 비추는 시간이 짧은 지역에서는 채도가 낮은 색채가 요구되어 녹색 및 청색과 같은 한색계에 대한 선호가 주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색채선호의 두 개의 유형은 열대지방에 있어서 태양광선의 우월과 극지방에 있어서의 백야의 지배와의 비교에 집약된다. 다시 말하면 색채선호는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적 조건 및 기후풍토 등의 특성에 의해 지배된다고 한다.

37) 최병식, 전계서, p.59

38) 파버비렌(Faber Birren), 『색채 심리』, (서울:동국출판사, 1995), p.224~239

② 연령설(延齡設)

파버비렌(F. Birren)은 “색채기호란 탄생 시부터 개인차가 생긴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이미 특정 색채에 대한 감성은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지속 할 것이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는 유아의 색채기호 순위는 노랑, 흰색, 분홍, 빨강, 보라, 주황색, 파랑, 녹색, 보라색이고, 성인은 파랑, 빨강, 녹색, 흰색, 분홍, 보라, 주황색, 노랑색의 순서라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인간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차분한 색을 좋아하고 명도, 채도는 낮아진다. 그 반면에 아동은 강렬한 색채를 좋아한다. 성인의 90%가 형태우월 이고 색채우월의 개성을 가진 성인은 충동적이고 비성숙적(非成熟的)이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비지적(非知的)으로 여겨진다.

③ 민족설(民族設)

색채선호의 민족설이란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민족의 색채선호 경향을 발견하고자 하는 학설로 민족의 기호색이란 오랜 역사를 통하여 길러진 결과이다. 체스킨(L.Cheskin)은 “ 환경은 선호색에 영향을 준다. 예컨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선조가 유럽에서 농업에 종사했거나 동부제국에서 온 사람들은 순도가 높은 색이 선호색이다. 그러나 그 자손은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일반적인 품위가 있는 중간색을 선호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파버 비렌(F. Birren)은 색채선호가 인종적 피부색과도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황인종은 노랑, 금색이고, 백인종은 파랑, 빨강, 녹색, 보라, 주황색의 순위라고 밝히고 있다.

④ 성격설(性格設)

난색계열은 자극, 흥분을 추구하므로 외향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이 좋아한다. 솔직하며 행동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색채를 좋아하지만 특히 난색계열을 좋아한다. 한색계열은 침착, 진정을 촉진하여 내향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좋아한다. 보수적이며 조용한 사람들은 한색계열을 좋아한다.

⑤ 성별설(性別設)

남성보다 여성은 색채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민감하여 화려하고 선명한 색을 좋아한다. 체스킨(L.Cheskin)에 의하면 “여성은 고대부터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색채 계

획과 방법으로서 남성을 유혹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여성은 남성의 주위를 환기시키는 화려하고 자극적인 색으로 경쟁을 하나 더욱 민감한 여성은 섬세하고 억누르는 인상을 주지 않는 파스텔조의 의복을 선택하여 역으로 효과를 노린다.”고 기술하였다.

일반적 경향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선호색은 한색계열보다 난색계열을 좋아하고 회색계열보다 순색계열을 좋아하며 중간색보다 원색을 선호한다.

⑥ 생리학설(生理學說)

인간이 색채에 대한 감성 및 반응하는 하나의 생물학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주장으로 파버비렌(F. Birren)도 이러한 생리학설을 심봉하는 학자 중 한 명이다.

인간이 색채에 대한 감정 및 반응하는 하나의 생물학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설이다. 벤햄(R.W. Burnham), 헤인스(R.M. Hanes), 바아틀슨(C.J. Bartleson)의 연구에서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망막 주변부의 크기는 수축하고, 홍채색소는 변화하며 색소는 피부의 색소와 같은 멜라닌색소가 발달한다는 설이다.

⑦ 교양설(教養說)

인간이란 지능적, 정서적, 정신적인 면이 보다 높아짐에 따라 스펙트럼 색의 순서가 장파장의 색채에서 단파장의 색채로 선호가 이동되며 무식하고 빈곤한 사람은 선명한 색채 계통을 좋아하지만 고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침착한 색을 좋아한다. 그리고 교양을 통하여 감정적 분화구를 가진 사람들은 중화된 계통을 좋아하고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강한 색채계통 및 순색을 좋아한다고 한다.

3. 색채 심리 연구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길포드(Guilford)³⁹⁾는 색채는 인간의 감정을 대신하는 일종의 언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색채는 우리들의 가장 깊은 감성적 감각인 시각적, 정신적 불안의 요인이 되어 우리들의 성격형성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색채심리

39) 길포드(J.P.Guilford,1897): 색채 배합에 관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었고 색채 선호와 색채 감정의 의미를 밝히기 위하여 연구하였으며 개인차에 보이는 색채 선호의 공통성은 생리학적 요인에 근거한다는 이론을 주장하였다.

를 연구하는 것은 인간심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도이취(Deutsch)⁴⁰와 같은 학자는 특히 신경증환자와 정신병환자를 중심으로 색채의 임상적 가치를 설명하고 있으며, 아이젠크(Eysenck)⁴¹는 히스테리 환자가 다른 정신병환자에 비해서 색채에 더 예민함을 관찰하였다.

색채의 심리적 감성에 대하여 아나스타시·포레이(Anastasi·Forey)의 연구(1942), 알슐러·해트윅(Alschuler·Hattwick)의 연구(1943), 브릭스(Brics)의 연구(1944), 나폴리(Napoli)의 연구(1951), 아사리의 연구(1956)등이 있는데 미술활동에 나타난 색채는 성격 연구에 매우 중요한 이해의 구실을 해 준다는 점은, 로르샤하(Rorschach)⁴²의 이론(1921)을 중심으로 한 임상가들 간에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⁴³ 알슐러와 해트윅(Alschuler·Hattwick)은 프로이드(Sigmund Freud)⁴⁴의 심층 심리학에 그 근거를 두고 유아의 미적 표현을 분석적으로 관찰 해석하고 있는데 그리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그리게 하는 자유 화법을 사용하여 아동의 색채감성의 심리를 분석하고 있다.⁴⁵ 또한 아사리도 아동 미술활동의 색채에 대하여 비슷한 연구를 하였는데 아사리는 심신동형설(心身同型說)에 근거한 것으로 심리 상태가 완전히 화면에 투사되는 것을 전제로 이론을 제시하였다.⁴⁶

김재은과 임형진은 어린이들이 미술활동에 사용하는 색채와 그들의 성격과의 관계를

40) 도이취(Felix Deutsch,1937): 물리학자, 빛과 색채의 정신병학적 의미를 연구한 저명한 학자이며 의학에서의 색채 연구 뿐 아니라 색채 심리학의 연구 분야에서도 중요한 길잡이의 역할을 하였다. 빛의 작용은 모든 육체를 구성하는 요소 뿐 아니라 정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41) 아이젠크(H.J. Eysenck,1916): 사람들의 색채 선호와 심리를 연구하였으며 이전의 연구를 모두 종합하여 요약하기 위하여 2만 1천 6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42) 로르샤하(Rorschach. H,1884): 「로르샤하 잉크브로트법(Rorschach Inkblot Method)」를 개발하여 색채 선호, 색채반응과 성격 특성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해명하고자 하였다. 열 개의 잉크 얼룩은 무의식의 심리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것을 이용하여 정상 그룹과 이상 그룹의 색채 반응을 연구 하였다.

43) 김재은, 전계서 , p.105

44) 지그문트 프로이드(Sigmund Freud 1856~1939): 오스트리아의 모리비아에서 출생.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그의 저서 「정신분석 강의」, 「히스테리 연구」, 「꿈의 해석」,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쾌락의 원칙을 넘어서」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신분석은 물론 문학작품을 분석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년의 기억」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45) 김춘일, 『아동미술론』, (서울:미진사, 1985), p.74

46) 김재은, 전계서 , p.111

연구하였는데 다른 학자들과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 하였다. 이들은 아동에게 미술활동을 일주일 간격으로 3회 그리게 하여 그 그림에 나타나 색채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색채(주조색)와 어린이들의 인성검사(퍼스널리티 테스트)점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⁴⁷⁾

색채가 지니고 있는 감정과 정서는 활발한 외부와의 접촉이 시작 되면서 신체적, 정신적 성숙을 키워나가는 아동에게 있어서는 더 예민하게 작용한다. 아동의 감정상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색채에만 커다란 비중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으나 아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색채가 갖는 의미는 무시할 수 없다.

1) 알슐러와 해트윅(*Alschuler and Hattwick*)연구

1947년 ‘회화와 퍼스널리티’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아동의 색채사용 방법과 색채의 배치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어린이의 색채 심리상태를 이해하려 하였다.

다음은 알슐러와 해트윅 (Alschuler and Hattwick)색채에 관한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⁴⁸⁾

① 난색 계통을 좋아하는 아동

난색을 즐겨 쓰는 아동은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감정적인 행동, 따뜻한 애정적인 관계나, 이 나이의 아이들에게 어울리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진 아이들이다. 애정에 대한 의존, 시기, 욕구 등 마음의 움직임이 강하다.

② 한색 계통을 좋아하는 아동

한색을 즐겨 쓰는 아동은 타인에 대한 비판적 심리이고 자기주장이 강하거나 의지적 독립심이 강하고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지를 못하는 타입이다. 두드러진 행동 특성은, 계획을 세워서 행동하며, 지적인 일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이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며, 이기적이며, 혼자서 놀며, 어른들에게 대해서 관심이 적으며, 또 어른들에게 의지하지도 않는 성격 특성을

47) 김재은, 전게서 , p.109

48) 최종인, 『아동미술지도』 ,(서울:형성출판사, 1988), p.90-92

가지고 있다.

③ 색을 적게 쓰는 아동

감정적 적응의 부족, 생활 경험의 부족, 창조적 경험 등이 부족하다.

④ 덧칠을 많이 하는 아동

필요 이상으로 덧칠이 많으며 열등감이 심하고 밑에 칠한 색은 자기감정으로 덧칠하여 이를 감추려 하는 것이다.

⑤ 화면을 더럽히는 아동

난잡하게 붓을 움직이거나 크레파스를 함부로 그어 대는 아동의 경우로 반항적인 공격심을 나타내며 계속 아동 상태에 머무르고 싶은 욕구의 표현이로 막내의 경우가 많다.

⑥ 빨강색을 좋아하는 아동

대체로 따뜻한 색을 좋아하는 아이들과 비슷한 행동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아이들은 “어린이나 친구들과 사이가 좋다.”, “잘 협동해서 논다.”, “일반적으로 좋은 적응을 보인다”든가 하는 행동적 특징을 들 수가 있다. 비교적 자유롭게 느낀대로 행동하고 반응하며 신체기능이 왕성하며 건전한 적응을 표시하고 있다. 색을 넓은 필치로 수직이나 수평으로 다른 색 위에 이중으로 칠 하는 것은 적대감이나 자기주장의 표현이며 빨간색이 조화롭게 칠해졌을 때는 애정의 표현이기도 하며 거칠게 칠해졌을 때는 적대감과 공격심을 표시할 경우도 있다.

⑦ 파랑색을 좋아하는 아동

불안이나 공포심을 품고 있을 때 잘 나타난다.

이 색을 좋아하는 경우 그 성격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표현하는 경향에 따라 성격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넓게 칠할 경우 성격은 비교적 밝고 주위에 잘 적응하는 편이며, 이지적이고 이상적이다. 반면에 덩어리 채 진하게 칠하는 경우는 성격이 내성적이며 자기 억제적이고 우울한 편이다. 파랑은 불안이나 공포심을 품고 있을 때 잘 나타난다.

또한 파랑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외적규범(명령, 금지, 규칙)등에 일단 어울리는 행동을 보이는 어린이

이들이 있다. 이 아이들은 파랑을 긴장된 날카로운 스트로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집중적인 물감의 덩어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통제된 불안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는 외적인 규범에 맞는 행동을 보여 주며 분명히 규범을 받아 드리는데 별로 어려움 같은 것이 없다는 기분을 표현한다. 이런 아이들은 선이나 형을 그릴 때에 파랑을 사용하며, 구성적인 그림을 그린다. 성격적으로 명랑하고 활동적이며, 적응활동을 보이는 일이 많다. 즉 파랑은 아동들이 어른들의 규준에 맞추려고 한다.

파랑이 노랑 위에 칠해질 경우에는 이 아이는 좀더 컸으면 하는 욕망을 나타내며, 노랑이 파랑 위에 칠해질 경우에는 그 아이는 아직도 어린아이이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⑧ 노랑색을 좋아하는 아동

의존적인 행동이 많으며, 유아적 상태에 머무르려는 욕구 사이의 갈등을 나타내는 색으로 해석되며, 걱정이 없고 행복스러우며 또는 어리광스럽고 친구관계가 좋으며 적극성을 나타내는 아동으로 해석된다. 정신발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소 정신적으로 지체되어 있는 듯이 보이며, 행동도 정서에 의해서 좌우되는 아이들이 많다.

⑨ 검정색을 좋아하는 아동

정서 행동에 결함이 있는 것을 표시하는데, 자유로운 감정의 흐름이 결여되어 있고 공포와 불안으로 압박을 느끼며 또 고독해지거나 공격적으로 되거나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진다. 이와 같은 아동들은, 엄격한 교사나 양친, 힘이 센 다른 어린이와 같은 사람에 대한 공포나, 자기의 가정 상황(즉 결혼 가정과 같은)이나, 자기의 신체적 결함에 대한 공포를 검정으로 표현한다. 더구나 이와 같은 공포와 싸워 이기려는 의욕을 거의 상실한 위축된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⑩ 주황색을 좋아하는 아동

주위환경에 잘 적응하고, 즐겁고 명랑한 기분을 가진 아이들이 많다. 반면, 자신의 강한 감정적 표현을 도피하려고하는 소심한 성격이 있기도 하다. 내적인 불안의 출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상적 놀이로 현실 역할에서 도피하려는 아동에게서 나타나기도 한다.

⑪ 고동색을 좋아하는 아동

고동색을 즐겨 쓰는 어린이 중에서 너무 일찍부터 용변훈련을 받았거나, 청결 습관을 과도하게 강요하는 가정환경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많았다. 유아적인 상태에 있고 싶어 하는 욕구의 표현이며 이 색을 고집하여 쓸 때는 모성애의 결여라고 볼 수 있다.

⑫ 보라색을 좋아하는 아동

알슐러의 연구에 의하면 보라색을 즐겨 쓰는 어린이는 소수에 불과 했다. 그 아동들은 모두 가정적으로 불행한 어린이였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보라색은 유난히 좋아하는 아동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사랑을 그리워하는 아동의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성격은 감상적이며 우울하고 자기중심적이다.

⑬ 초록색을 좋아하는 아동

자기감정을 강하게 표현하지 않는 내향적인 어린이이다. 초록색은 감정적 충동이 순화된 것이며 감정이 결여나 회의적인 경향이 있기도 하며 엄격한 가정의 아동이 즐겨 쓴다고 할 수 있다.

⑭ 흰색을 좋아하는 아동

외부에 대한 후회 등이 결백한 심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나타낸다.

2) 아사리의 색채 진단법

아사리⁴⁹⁾는 ‘무조건 테스트’를 실시하여 이것에 나타나는 색채의 심리적 의미를 연구하였다. 아사리는 묘화분석을 통해 미술활동의 색채에 대해 가설을 만들었는데 색채의

49) 아사리는 보라색을 깊이 연구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의 진단법을 심신동형설(心身同形設)이라 하는데 이것은 묘화원리를 이종동형(異種同型, isomorphism)이론에 입각해서 만들었다. 심신동형설이란 심신의 현상을 같은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 심신동형설은 심리적 형상과 생리적 과정 사이에는 그 구조에 있어서나 형태에 있어서 공통된 점이 있고 서로 대응하거나 병행하는 현상이 있다고 보는 입장을 말한다. 그러한 구조에 정신 분석학의 원리를 집어넣어서 그림을 해석할 때는 색채의 의미는 빨강에서 보라까지의 범위 내에서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따라서 개인적인 의미가 각기 색채에 대응하는 감정에 깊게 관련되어 있어서 색채의 의미와 감정, 이 두 가지는 결코 떼 수가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의미는 빨강에서 보라까지의 범위 내에서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적인 의미가 각기 색채에 대응하는 감성에 깊게 관련되어 있어서, 색채의 의미와 감정, 이 두 가지는 결코 뗄 수가 없다고 하였다. 아사리에 의하면 색채에 대한 감정의 연관성은 인간으로서 만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 “질병으로 인해 야기되는 감정은 보라색을 택한다고 한다. 이것은 만인의 공통된 현상이다. 또한 성적인 관심이 있을 경우에는 빨강과 초록의 콘트라스트(contrast)를 택한다. 이것은 모두 공통이다...”라는 식의 이론을 내 세우고 있는데 아사리의 이론은 모두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다.⁵⁰⁾

아사리의 색채에 의한 심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보라색의 의미

본인의 질병 중 이미 계속되어 오던 지병 또는 가족의 질병과 관계가 있고 인물의 복잡중 세로나 가로 무늬 등에 보라색이 칠해져 있으면 가족 중에 환자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라색은 상당한 정도로 대인관계가 나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대해서는 김재은도 임상적 경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는데 즉, 배경이 보라색일 경우는, “외고집, 불통, 자기중심적, 비사교적, 남과 잘 다투는” 등의 수식어가 붙는 아동이 많다고 분석하였다.

② 검은색의 의미

아사리는 학교에서 미술활동에서 검은색을 자주 사용하는 아동의 부모를 초청해서, 부모를 진단해 보니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형이 나왔다고 한다. 하나는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잘못된 적극성을 가진 어머니에게 대해서 아동들이 검은색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았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가 일시적으로 화를 낸다거나 하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성격화된 어머니의 히스테릭한 정서적 상태를 말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것 때문에 가정을 불유쾌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온통 화면 전체를 검은색으로 칠하는 것은, 어머니의 히스테리에 대한 공포를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검은색의 윤곽은 어머니의 훈육의 엄격함, 검은 구름은 어머니가 화를 내지 않을까 하는

50) 김재은, 전계서, p.113

불안감을 나타낸다.

③ 노란색의 의미

단독적인 사용보다는 검정과의 콘트라스트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같은 아동이 이 두 색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아버지가 사망한 아이들이 많았다고 하였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색의 사용은 아버지의 꾸지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때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는 경우도 이와 같은 검은색과 황토색, 검은색과 고동색이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④ 황토색의 의미

야뇨증 아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줌을 싸고 꾸지람을 들으면, 그날은 90%의 아동들이 미술활동에서 황토색을 쓴다고 한다. 특히 검은색과 황토색은 분명히 야뇨증아동들의 반응이라고 보았고 그 이유로는 훈육에 대한 보복일 것이라고 보았다.

⑤ 고동색의 의미

진 고동색과 검은색 또는 고동색과 검은색의 콘트라스트는 도벽(흠치는 습성이 있는 아동)을 가진 빈곤한 가정에서 자란 아동인 경우가 많다고 했으나, 빈곤해져서가 아니라 부모가 물질 공급을 아이들이 요구하는 만큼 해 주지 않을 때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빈곤으로만 진단할 수는 없다. 대체로 이 색의 대조는 아버지의 사망, 부재로 인한 극도의 애정 부족이 그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고동색의 복장은 극도의 애정 부족이 그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고동색의 복장은 극도의 애정 부족이나 물욕불만을 표시하기 때문에 빈곤색이라 했다.

⑥ 초록색의 의미

허약한 아동들이 즐겨 사용하는 색으로 아동이 피로한 후에 그리는 그림에 잘 나타난다고 하였다. 초록색은 소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색채와의 콘트라스트를 이루면,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즉, 빨간색과 초록색의 콘트라스트는 성적 관심을 표시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음식 유흥업을 하거나 어머니나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는 경우의 아동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3) 김재은과 임형진의 연구

① ‘일반적인 활동성’이 높은 어린이

남아의 경우는 색채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아의 경우는 황토, 보라, 고동, 파랑의 색채보다는 초록색을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파랑은 일반적인 활동성이 높은 아동이 즐겨 쓰지 않는 색으로 나타났다.

② ‘정서적 안정감’이 높은 어린이

주황색을 좋아하는 어린이는 노랑, 검정, 황토, 초록, 파랑색을 좋아하는 아동들보다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런데 여아의 경우는 초록색을 좋아하는 아동보다 고동색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다.

③ ‘지배성’이 높은 어린이

남아의 경우 황토색보다는 주황색을 좋아하는 어린이가 더욱 지배적이고, 여아의 경우는 초록색, 고동색을 좋아하는 어린이가 더욱 지배적이다.

④ ‘운동성(運動性)’이 높은 어린이

주황에 비해 황토색을 좋아하는 남아들이 더욱 충동적이며 파랑, 초록, 황토, 보라, 고동색에 비해 빨강, 노랑색을 좋아하는 여아들이 더욱 충동적이다.

⑤ ‘사려성(思慮性)’이 높은 어린이

남아의 경우 색채의 기호간에는 변별이 불가능하며 여아의 경우 빨강색보다는 보라나 파랑색을, 고동색 보다 녹색을 좋아하는 여아들이 사려가 깊다고 하겠다.

⑥ ‘사회성(社會性)’이 높은 어린이

파랑과 황토색보다는 초록색을 좋아하는 남아와 파랑이나 노랑색 보다 주황색을 더 좋아하는 여아들이 더 사회성이 높다.⁵¹⁾

51) 김정, 『미술교육의 모든 것』, 전개서, p.382

IV. 색채감성이 미술활동에 미치는 영향

1. 환경과 색채감성의 관련성

환경적인 요인을 중시한 사람들 중에 미국의 행동주의 심리학자인 왓슨(Watson)은 그의 저서 「Behaviorism」에서 “나에게 12명의 건강한 아기를 주고 어떤 인간으로든 지 만들라고 주문만 하라. 그러면 의사, 변호사, 예술가, 상인의 두목, 아니 거지, 도둑이라도.... 나는 만들어낼 수 있다.”⁵²⁾고 하면서 환경적인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정서, 성격 등의 모든 것은 후천적인 영향, 즉 환경의 힘으로 형성된다고 하였다. 환경이 주는 문화적 영향은 아동의 관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특히 가족, 교사, 친구들과 같은 주변인이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특별히 취학 직전후의 아동에게는 동료 집단의 관심은 곧 자신의 관심이 되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⁵³⁾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시야 속에 펼쳐지는 여러 색채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물이나 현상은 하나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 나타나는 색채는 인간의 심리적인 면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연이 우리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은 아주 크다. 몸과 마음이 고단하고 답답할 때 저 멀리 있는 푸른 산을 보면 새로운 활력이 생기는 기분이 든다. 하던 일이 쉽게 풀리지 않을 때 저 푸른 바다를 보고 있노라면 어느 정도는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느낌을 우리는 종종 받는다. 이렇듯 환경이 주는 기분과 더불어 그것이 지니고 있는 색의 느낌은 분명 우리에게 커다란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농촌이나 어촌 등 자연과 더불어 커 가는 아동과는 색의 선호와 그에 따른 심리작용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어린이는 자신이 일상생활

52) 김경중, 최인숙, 『유아발달심리』, (서울:형설출판사, 1989), p.33

53) 김경중, 최인숙, 상계서, p.29

에서 익숙하게 보아왔던 환경 색채에 영향을 받게 되고 또한 그 심리 작용을 아동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미술활동의 영향에 미치는 환경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때 가정, 학교, 사회 환경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가정환경이 원만하여 가정이 아동의 가능성을 충분히 신장시켜 줄 수 있는 양분을 공급해 준다면 대단히 개성적이며 안정된 자아의식을 길러줄 수 있다. 그러나 가정환경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에는 억압, 욕구불만, 부적응 등의 현상이 일어나 심한 경우에는 발달에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는 가정의 인적, 물리적(物理的), 심리적 조건이 조화를 이루면서 제공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학교 환경을 살펴보면 미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으로 교육 기관인 학교를 들 수 있는데, 학교의 교육 환경이란 학교의 물리적, 인적, 심리적 환경을 말한다. 즉, 아동은 교실의 크기, 밝기, 색채, 여러 가지 비품, 교수 매체 등에 따라서 생활하는 태도나 경험이 달라지며 교사의 태도나 그의 인격, 교사와 아동과의 관계 등이 복합되어 형성되는 학급의 분위기가 아동의 성격, 태도, 행동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사회 환경을 살펴볼 때 사람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에 따른 사회의 문화와 접촉하면서 성장 발달한다. 즉, 지역에 따라 일정한 문화를 갖고 있는데, 가정은 바로 이 지역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아동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모방성과 호기심이 왕성할 뿐 아니라 또래 집단을 찾아서 가정 밖에서 활동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사회 환경이 이들의 가치관과 태도 등의 특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대중 매체가 오늘날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 그 중에서 특히 TV나 컴퓨터 등의 전자 매체가 주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⁵⁴⁾

54) 최병식, 전계서, p.70

2. 색채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색채에 있어서 강한 명도, 높은 채도, 그리고 장파(長波)의 파장을 가지는 색상 등이 자극성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일부 실험 연구들이 색채에 대한 신체 반응을 보여준 바가 있다. 페레(C.Fere)는 청색, 녹색, 황색, 주황색, 적색 등으로 이어지는 색광(色光)을 보여줄 때 근육의 힘과 혈액순환이 증진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⁵⁵⁾

이러한 신체적 반응은 화가 칸딘스키(Kandinsky)의 색채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그는 황색의 동그라미는 ‘관람자에게 가까워 보이는,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는 운동’을 보여주고, 청색의 동그라미는 ‘가운데로 파고 들어가는 운동을 보여주며, 관람자에게서 멀어져간다’고 주장 했다.

색채가 보는 사람에게 표상지각을 유발하여 감정에 일어나는 표상성이나 연상으로 오는 감정적 표상성을 색채감정이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색채 감정은 내면적인 경험이 인체기관의 반응이라는 심리적인 측면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색과 인간의 관계에서 색채의 심리적 작용은 색채가 지닌 표정이나 상징에서 오는 감각적인 연상에 의해 부여될 수 있는 감정들이 추상화되어 우리의 정서에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느끼는 색의 인식은 눈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감각을 통한 충격은 심리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색에 대한 반응은 자극적이고 감정적이며 직접적이다.

특히, 심리적 요인은 각 개인이 받는 심리적인 색채반응(color response)을 규명하는 것으로서 이 반응은 개개인의 기억, 감정, 주의 등의 성향이 작용하게 된다.

아동들의 감정생활이나 정도를 이해하는 단서는 선이나 형태보다는 색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색은 인간의 내재적 현상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아동과의 관계를 밀착시켜 논한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스럽다.⁵⁶⁾

55) 루돌프 아르하임(Rudolf Arnheim), 전계서, p.332~333

56) 김정, 『유아미술 입문』, (서울:일지사, 1978), p.119

아동의 정서적, 지적 발달은 끊임없는 환경과의 접촉 속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으며 환경에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아동들이 접하는 모든 사물이 색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색채가 갖는 영역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색채가 지니고 있는 감정과 정서는 활발한 외부와의 접촉이 시작되면서 신체적, 정신적 성숙을 키워나가는 아동에게 있어서는 더 예민하게 작용한다. “인체의 기관은 밝은 빛을 받았을 때가 어두운 빛을 받았을 때보다 더 빨리 반응하게 된다.”⁵⁷⁾

인간은 성인에 이르기까지에는 수많은 환경과 접촉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개개인마다 색에 대한 감정에 차이가 일어나며, 선호경향도 각양각색으로 복잡한 경향을 띄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내재적인 경험의 축적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빨강, 노랑 등을 난색계열로 파랑, 초록 등을 한색계열로 일컫는데, 본래 온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가리키는 한(寒),난(暖)이라는 말이 색채가 가지는 표현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듯이, 우리의 경험과 색채 사이에는 대단히 가까운 유사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들은 원색(순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개의 아동들이 명도, 채도가 높은 강렬한 색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색에 대하여 다양한 감정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 시각(vision)을 통하여 인체에 반응하는 속도가 빠른 원색을 먼저 인지하기 때문이다.

색에 대한 감정은 아동의 개성과 그때의 감정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며, 아동의 지각과 경험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이에 일본학자 아사리는 “색의 감정이나 이미지는 인간마다 복잡한 경험에 의한 것이므로 하나로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전제하고, 대체로 나이가 어릴수록 원색계통을 좋아하며, 일반적인 개념은 어른과 비슷하고”고 했다.⁵⁸⁾ 이처럼 아동들이 색채에 대한 감정이 다양하지 못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안목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어떤 색에 대한 선호가 우연히 생겨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57) 파버비렌(Faber Birren), 전게서, p.185

58) 유아미술연구회, 『유아미술교육』, (서울:학문사, 1995), p.136

V. 아동 미술활동을 통한 색채감성 지도 방안

1. 아동을 위한 색채지도

색을 지각할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이고 빛과 물체와 눈이 있어야 색 지각이 생겨난다.⁵⁹⁾

색채 지도에서 색채 문제는 비단 시각으로만이 아니라 색에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 경로와 결과를 규명함에 있어서 여러 학문이 관련되는데 심리 학적측면과 미술교육학적 부문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심리학적인 경험으로 볼 때 색채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심리적 정서에도 작용한다. 미술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색채는 예술가의 심리적 관점에서 흥미를 가지는 것이며, 색채 지각과 색채 효과간의 관련이 커다란 관심사이다.

즉, 미술교육에서 조형의 기본인 색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직업은 이후의 예술 활동을 성취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구성이론만으로 미술 창작이 이뤄지지 않듯이 관찰과 명확한 표현 능력의 발달 없이는 색채를 보는 눈은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되는 아동미술교육에 있어서 길러지지 않는 것이다.⁶⁰⁾

아동들은 색과 관련하여 자기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색채가 미치는 영향은 정서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색채교육의 부실과 색채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및 잘못된 색채 적용의 혼돈과 겹하게 된다.⁶¹⁾

개인의 개성과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획일화된 색채 교육은 아동에게 고정된 색채관념을 가지게 만들어 편협한 색채관을 형성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풍부한 색채경험을

59) 윤일주, 『색채학입문』, (서울:민음사, 1978), p.15

60) 박순덕, 「국민학교미술에서 색채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p.7

61) 권은숙, 『색으로 승부하는 21세기』, (서울:웅진출판사, 1995), p.11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다양한 색채공간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색채 발달단계에 맞추어 아동이 다양한 체험이나 색채학습을 하는 것은 섬세한 감각을 길러주는 활동이 된다고 보고, 지도내용으로는 아동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색 감각 학습, 색채 활용, 표현활동을 넣어서 자연의 아름다움의 색을 보는 눈을 갖게 하고, 색의 다양함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색채 지도 방안에 있어서 교사는 아동들이 교사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개념적인 색채 인식이 되기보다는 다양한 체험을 중심으로 지도하여 시각적으로 색채를 알게 하고 색채에 대하여 예민해지며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색채 지도를 하는데 비중을 두어야 하며, 현장의 미술 교과내용을 색채와 관련 재구성을 지도함으로써 자유로운 표현발달에 도움을 주는 수준 높은 미술 수업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

2. 아동 색채 활동을 위한 학습내용

1) 같지만 다른 느낌

◆ 색채 활동 영역 : 개념색 지양

◆ 프로그램의 개요

선으로만 그려진 학습지에 사물 고유의 색과 다르게 아동들이 사용하고 싶은 색을 선택해 주어진 시간 안에 윤곽선 밖으로 나오지 않게 칠하는 개념색을 지양하는 색채표현 기초 활동이다. 그리기의 주제 선정과 색칠에 자신이 없는 아동들에게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활동이다.

◆ 준비물

색칠 연습 학습지 (동화 속 주인공이나 동화 이야기 장면, 아동들이 좋아하는 동물, 아름다운 자연 풍경, 먹고 싶은 음식, 과일 야채 등의 주제로 윤곽선만 그려진 학습지), 크레파스, 색연필, 싸인펜 등

◆ 활동 내용

- 주어진 학습지의 윤곽선이 그려진 그림 안쪽에 사물 고유의 색과 다른 색으로 자신이 칠하고 싶은 색을 선택해서 정해진 시간 동안 칠한다.
- 색칠하는 시간이 모자랄 경우 일단 활동을 멈추게 한다.
- 아동들은 학습지에 칠해진 그림을 보고 서로 느낌을 이야기 한다.
- 색칠 학습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색의 아름다움과 색의 다양함을 인식하도록 한다.

◆ **유의점**

주어진 시간 안에 색칠을 다하지 못해도 야단을 치거나 하여 심리적인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아동이 원하는 경우 다른 시간을 이용하여 남은 부분을 더 색칠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그림을 완성하려는 의욕을 보이거나, 간혹 색칠하기를 귀찮아하는 아동도 있는데 억지로 색칠을 강요하지 않는다.

2) 풀그림 그리기

◆ **색채 활동 영역 : 색의 혼합**

◆ **프로그램의 개요**

밀가루풀에 색물감을 섞어 손가락을 사용해서 그리는 활동으로 색채표현은 크레파스나 붓 등의 도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도 색채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됨을 알고 재미있고 즐거운 색채표현의 동기 유발이 된다.

◆ **준비물**

밀가루풀, 색물감, 빨렛드, 물수건, 도화지

◆ **활동 내용**

- 준비한 밀가루풀과 색물감을 섞어 원하는 색의 풀물감을 만든다.
- 풀물감을 손가락으로 찍어 주제에 어울리는 색채로 도화지에 표현한다.
- 표현하는 색을 바꿀 때에는 손가락을 물수건에 깨끗이 닦은 다음 풀물감을 다시 손가락에 묻혀 바르고, 의도적으로 풀물감을 섞어 그려보기도 한다.
- 완성된 그림을 서로 보여 주며 느낀 점을 이야기 한다.
- 풀그림에 나타난 색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혼색이 된 부분도 찾아 보면서 그림 전체의 느낌을 이야기해 본다.

◆ **유의점**

풀물감을 사용한 후 손가락에 묻어 있는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한다. 손에 풀물감이 지워지지 않은 채로 눈을 만지거나 입에 대지 않도록 한다. 풀물감 그림이 빨리 마르지 않으므로 교실 그늘 한쪽에 모아서 서서히 말리도록 한다.

3) 물체 대고 문지르기

◆ 색채 활동 영역 : 개념색의 지양, 색의 농담

◆ 프로그램의 개요

여러 가지 물체를 종이에 대고 문지르면 물체의 모양이 나타난다. 관화의 기법을 느낄 수 있으며, 문지르는 힘의 강약에 따라 색채의 느낌도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물체와 같은 색으로 문지르기도 하고, 다른 색으로 문지르기도 하면서 개념색을 지양한다.

◆ 준비물

나뭇잎, 동전, 빗, 단추 등 요철이 있는 물건, 크레파스나 색연필, 파스텔, 싸인펜 등, 한지

◆ 활동 내용

- 문지르기 활동에 필요한 물건들을 책상 위에 늘어 놓는다.
- 문지르기 할 물체 위에 종이를 대고 크레파스로 문지른다.
- 물체를 문지르는 힘을 강하게, 또는 약하게 하며 종이 위에 나타나는 색의 진하기와 연하기를 알아본다.
- 다른 종류의 여러 물체도 종이 위에 대고 문지른다.
- 문지르기 한 결과물을 아동들이 서로 보여주며 색채의 느낌을 이야기한다.

◆ 유의점

물체에 대고 문지를 때 너무 무리한 힘을 가해 종이가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싸인펜이나 연필, 파스텔로도 문질러 색채의 느낌을 비교해 본다.

4) 덧칠한 색 긁어내기

◆ 색채 활동 영역 : 색의 감각

◆ 프로그램의 개요

바탕지에 크레파스를 사용해 여러 가지 색으로 덧칠한 뒤 혼색이 된 색채를 느껴보고, 손톱이나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덧칠한 색을 긁어내어 나타난 색채의 변화를 알

아보는 활동으로 색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색을 혼합하고 끊어내서 다양한 색채를 활용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 준비물

크레파스, 도화지, 색도화지, 연필, 송곳, 연필칼

◆ 활동 내용

- 도화지에 여러 가지 색으로 덧칠을 해 둔다.
- 색덧칠이 끝나면 그리고 싶은 주제로 손톱이나 뾰족한 물체로 끊어서 그림을 그린다.
- 끊어서 나타난 그림과 처음의 색의 변화를 느껴본다.
- 끊어서 나타낸 그림을 아동들이 서로 보여주며 느낌을 이야기 한다.

◆ 유의점

덧칠을 할 경우 너무 많은 색을 사용하지 말고 3~4가지 정도의 색을 사용하도록 한다. 크레파스 가루가 많이 나와 바닥이나 옷에 묻기가 쉬우니 휴지를 옆에 두고 적절하게 닦아내도록 한다.

5) 종이모자 꾸미기

◆ 색채 활동 영역 : 색의 배색, 색의 조화

◆ 프로그램의 개요

학년 아동 전체가 같은 색의 종이 모자를 만들고, 각기 다른 색으로 모자를 장식하는 활동으로 바탕색은 같으나 꾸미는 색의 다양함에 따라 모자마다 주는 느낌도 각기 다름을 알고, 눈에 띄는 색깔과 눈에 띄지 않는 색깔을 비교해 봄으로서 색의 대비 효과와 색의 조화도 알 수 있다.

◆ 준비물

종이 모자(같은색), 색종이, 가위, 풀

◆ 활동내용

- 학습 아동 전체가 같은 바탕색 종이 모자에 아동 각자의 생각대로 색종이를 사용하여 꽃을 만들어 붙이거나, 무늬를 꾸미도록 한다.
- 완성된 모자를 쓰고 서로 보면서 느낌을 이야기 하도록 한다.

- 눈에 잘 띄는 색의 모자를 쓴 아동과 눈에 잘 띄지 않는 색의 모자를 쓴 아동이 누구인지 이야기해 본다.
- 같은 느낌을 주는 모자를 쓴 그룹끼리 모여 즐거운 노래에 맞추어 행진을 해 본다.

◆ **유의점**

종이 모자 접기가 어려운 아동은 교사가 도와주어 모자 꾸미기 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6) **자연물로 나타내기**

◆ **색채 활동 영역 : 색의 조화**

◆ **프로그램의 개요**

생활 주변의 곡식과 열매 등의 자연물을 이용해 자연 그대로의 색을 사용하여 꾸미는 활동으로 자연물의 색이 다양하면서도 아름다움을 느끼며 작품 전체가 주는 색의 조화를 느끼면서 제작할 수 있다.

◆ **준비물**

여러 가지 과일, 곡식의 씨앗, 식물의 가지나 나뭇잎, 접착제, 하드보드지

◆ **활동 내용**

- 준비한 자연물을 색상별로 책상 위에 배열해 본다.
- 표현 주제에 알맞은 소재를 선택해 하드보드지에 적절히 구도를 잡아 배치한다.
- 접착제를 사용하여 한 부분씩 붙여나간다.
- 완성된 작품을 감상하며 표현이 재미있거나 잘 된 부분을 찾아보고 서로의 느낌을 이야기 한다.

◆ **유의점**

열매나 곡식 등 자연물을 사용해 작품을 만들 때 곡식이나 열매의 소중함을 알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재료를 쓰지 않으며, 함부로 다루거나 버리지 않도록 한다.

7) **내 마음의 색 표현하기**

◆ **색채 활동 영역 : 색채 이미지**

◆ **프로그램의 개요**

심상을 색으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색에도 느낌이 있음을 알고, 자신의 마음을 색으로

표현해본다.

◆ 준비물

도화지, 물감, 수채도구, 파스텔, 크레파스, 색연필

◆ 활동 내용

- 사람이 느끼는 기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아동과 이야기해 본다.
- 여러 가지 기분을 얼굴 표정이나 몸짓으로 표현해 본다.
- 여러 가지 기분을 색으로 표현하면 어떤 색을 쓸 것인지 생각해 본다.
- 자신의 기분이나 마음을 색의 느낌을 살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본다.
- 완성된 작품을 보며 사용한 색의 느낌을 서로 이야기 해 본다.

◆ 유의점

다른 사람이 쓰는 색에 영향을 받지 말고 스스로 색을 선택하도록 자유롭게 허용된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8) 소꿉놀이 기구 만들기

◆ 색채 활동 영역 : 색의 조화

◆ 프로그램의 개요

아동들과 친근한 소꿉놀이 그릇을 만드는 활동으로 지점토와 색고무찰흙을 사용하여 물감이나 크레파스 외에도 색채를 표현할 수 있는 재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활동이다.

◆ 준비물

지점토, 색고무찰흙, 찰흙판, 물수건, 비닐주머니

◆ 활동내용

- 소꿉놀이에 필요한 기구나 물건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야기해 본다.
- 손으로 빚기에 알맞은 크기로 지점토나 찰흙을 떼어내어 모양을 빚는다.
- 색고무찰흙을 같이 사용하여 아름답게 색채감을 살린다.
- 완성된 작품을 보며 잘된 점을 서로 이야기 해 본다.

◆ 유의점

완성된 작품을 말릴 때는 급격히 건조되지 않도록 응달에서 서서히 말리도록 한다.

남은 지점토나 색고무찰흙은 비닐 주머니에 잘 싸서 다시 사용 하도록 한다.

9) 이야기 나라 꾸미기

◆ 색채 활동 영역 : 색의 조화

◆ 프로그램의 개요

이야기책을 읽은 것 중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 그리기, 찢어 붙이기, 물채 붙이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 나라를 꾸며 색의 조화를 자신의 마음을 색으로 표현해 본다.

◆ 준비물

4절 도화지, 크레파스, 싸인펜, 색종이, 잡지, 병뚜껑, 단추, 수수깡, 털실, 접착제 등

◆ 활동 내용

- 동화 속의 가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야기 해 본다.
- 6명이 한 모듬이 되어 주제를 정하고 역할 분담을 한다.
- 준비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꾸민다.
- 이야기 나라의 특징이 잘 나타나도록 색의 느낌을 살려 표현해 본다.
- 완성된 작품을 보며 재미있게 나타낸 부분과 느낌을 서로 이야기 해 본다.

◆ 유의점

재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자칫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므로 색의 조화를 이루도록 적당히 알맞게 쓰도록 한다.

10) 우리 편 잘 해라

◆ 색채 활동 영역 : 다양한 색채 표현, 색의 조화

◆ 프로그램 개요

각종 경기 행사에 응원 도구를 만들어 응원전을 펼치는 활동으로 아동들이 매우 즐겁고 신나게 할 수 있는 일종의 퍼포먼스이다. 눈에 잘 띄는 색으로 여러 가지 응원 도구를 만들어 색의 배치와 조화로우음을 알 수 있다.

◆ 준비물

아동들이 만든 각종 응원도구(악기, 응원복, 응원모자, 응원장갑, 프랭카드, 응원부채 등)

◆ 활동 내용

- 아동들 각자가 만든 응원 도구를 가지고 운동장에 모인다.
- 아동들이 서로 의논해 응원전의 방법 및 역할을 정한다.
- 응원전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의 다양한 색의 어울림을 느껴본다.
- 응원전을 마치고 사용했던 응원도구의 색이 눈에 띄었거나, 재미있었던 장면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 유의점

응원전은 자칫하면 너무 소란하거나 움직임이 커서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서로가 조심하고 양보하는 자세로 참여하도록 사전에 지도 한다.⁶²⁾

62) 김희숙, 「조형놀이를 통한 효과적인 색채지도에 관한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교육석사학위논문, 2003), p.58~65

V. 결론

아동의 미술은 자아표현과 함께 상징적 의미를 갖으며 자유로운 그림 표현을 통해 욕구가 발산된다. 그리고 언어를 대신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수단의 결과물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미술 활동 과정을 통해 심리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의 미술활동 속에서 아동의 생리적인 조건, 심리적인 감정, 정서의 표출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색채이다.

색채는 미적 감각을 익힐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고, 정서적, 육체적으로 안정을 주어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게 하므로 아동들의 성격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개개인마다의 색채선호 경향에는 차이가 나는데 그러한 이유는 그가 처한 환경이나 교육 또는 자신의 성격이나 습관 등의 영향과 함께 그 시대적 유행, 사회적, 관습적 조건과 경험 등에 좌우된다. 그러므로 성장해 가는 아동들에게 있어서의 주변 환경은 색채 활동에 많은 영향을 준다.

아동의 미술활동에서 자주 보여지는 색을 꼭 좋아하는 색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고 또 그 색을 자주 등장시킨다는 것으로 아동의 성격을 절대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아동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고 이러한 시각은 그들의 성격이나 생활환경, 지역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아동의 경험은 성인에 비해 제한적이고 주어진 환경에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 쉽다. 즉, 제한적인 경험의 자기 테두리 안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한다. 따라서 아동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에 크고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이 선호하는 색상과 선호하지 않는 색상의 연구결과를 보면 남아는 푸른색 계열의 색상을 선호하고, 여아는 붉은색 계열의 색상을 선호하는 것은 주변 환경의 영향에 의해 색상을 선택하기 전 무의식적으로 성별을 구분 짓고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들은 원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는데 이런 명도, 채도가 높은 강렬한 색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색에 대하여 다양한 감정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 시각을 통하여 인체에 반응하는 속도가 빠른 원색을 먼저 인지하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색채의 심리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색채가 주변 환경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며, 둘째, 자신의 지성과 감성에 따라 색채로 화면을 인식하여 그것을 보충하고 형태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음악적 요소 중 리듬을 창조하여 영혼에 호소하는 어떤 감정을 암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색채로 정서적 심리 상태를 알아 볼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굳이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무언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넷째, 색채에는 숨겨져 있는 아동들만의 진정한 본성이 반영 되어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개성과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획일화된 색채 교육은 아동에게 고정된 색채관념을 가지게 만들어 편협한 색채관을 형성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풍부한 색채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다양한 색채공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본다.

아동 색채 연구는 학술적인 연구에 비하여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도 단순히 색채 감정 연구만으로 그쳐 실질적인 미술활동에 적용하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색채는 감각적이고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조사가 힘들다. 하지만 똑같은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필요로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무엇보다 색채에 민감한 시기인 아동기에 자신만이 느끼는 색채의 시각과 심리를 연구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고정된 색채인식을 보다 자유롭게 여러 측면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여 아동 미술활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색채의 개념과 감정적 효과, 연상 작용의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아동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색채 심리에 대한 인식과 감각을 이해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여러 학자들이 연구한 아동의 색채 인식 발달 단계, 색 선호, 색채 심리를 연구 분석하여 색채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과 미술활동과 환경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폭넓은 색채에 대한 인식 기회를 넓혀 색의 올바

른 이해와 풍부한 감각 경험을 통해 색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아동의 정서순화 및 바람직한 인격형성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올바른 색채지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자료로 제공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아동 미술활동을 통한 색채 감성 지도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연구 결과가 색채의 감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오고 색채 심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내면을 바로 들여다보고 그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더 나아가 아동들의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위한 미술교육에도 조금이나마 유익하게 사용되었으면 한다.

참고 문헌

단행본

강순규, 『아동의 색채 선호와 행동 특성 관계』, 서울: 미진사, 1995

권은숙, 『색으로 승부하는 21세기』, 서울: 웅진출판사, 1995

김경중, 최인숙, 『유아발달심리』, 서울: 형설출판사, 1989

김삼량, 『미술교육개론』, 서울: 미진사, 1992

김재은, 『그림에 의한 아동의 심리진단』, 서울: 교육출판사, 1988

김정, 『美術教育總論』, 서울: 학연사, 1986

『미술교육의 모든 것』, 서울: 예경, 1997

『아동의 미술교육연구』, 서울: 창지사, 1994

『유아미술 입문』, 서울: 일지사, 1978

김춘일, 『아동미술론』, 서울: 미진사, 1985

박은주, 『색채조형의 기초』, 서울: 미진사, 1989

송인섭, 『교육심리학』, 서울: 양서원, 2000

유관호, 『실제 이론의 색채』, 서울: 청우, 1983

유아미술연구회, 『유아미술교육』, 서울: 학문사, 1995

윤일주, 『색채학입문』, 서울: 민음사, 1978

조용진, 『아동화의 이해와 지도』, 서울: 양서원, 2001

최병식, 『한국 유아동미술교육 대전집』, 서울: 예서원, 2001

- 최영훈, 『색채학 개론』, 서울: 미진사, 1985
- 최종인, 『아동미술지도』, 서울: 형성출판사, 1988
- 한국어 사전 편찬회, 『한국어 대사전』, 서울: 현문사, 1976
- Cathy A. Malchiodi, 『아동미술 심리이해』, 서울: 학지사, 2001
- Faber Birren, 『색채 심리』, 서울: 동국출판사, 1995
- Rudolf Arnheim, 『미술과 시지각』, 서울: 기린원, 1995
- V. Lowenfeld and W.Brittain,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서울: 미진사, 1993
- William Charles Libby, 『색채의 구성적 감각』, 서울: 미진사, 1988

논문

- 김희숙, 「조형놀이를 통한 효과적인 색채지도에 관한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교육석사학위논문, 2003
- 박순덕, 「국민학교미술에서 색채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이남옥, 「아동 미술 교육에 있어서 색채의 중요성」, 조선대학교 교육석사학위논문, 2000
- 이선복, 「아동의 색채 선호와 연상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조형석사학위논문, 2001
- 전수경, 「환경에 따른 아동의 색채 선호도와 색채 심리 분석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석사학위논문, 1998
- 정지현, 「색채 기호와 색 연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석사학위논문, 1992
- 홍선화, 「최근 한국 유아동의 색채심리분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석사학위논문, 2002